

# 고린도전서

## 인사와 감사

-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
-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록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
-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
- 4 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
- 5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
-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
-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
-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
-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

## 고린도 교회의 분쟁

- 10 ●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
-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
-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, 나는 아볼로에게, 나는 제바에게,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
-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
- 14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
-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

### 1장 요약정리

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접한 후 책망과 권면을 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. 본장에서는 첫째 바울이 문안인사를 한 후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, 둘째 교회의 분열을 지적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.

### 1:1 소스데네

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했던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(행 18:17)으로 이 사건 후 독실한 성도가 된 듯하다.

1:2 고린도 그리스의 항구도시로 상업과 무역의 도시이자 동서

문화와 종교가 혼합을 이루었다. 또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다.

### 1:9 미쁘시도다

미쁘시도다(헬, 피스토스)는 '신실한, 믿음만한'이란 뜻으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사실을 말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이다.

16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 
 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도라  
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 
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 
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  
 이라

**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**

- 18 ●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
- 19 기록된 바  
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
-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
-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
-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
-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
-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
-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
- 26 ●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
-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
-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
-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
- 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

**1:16 스테바나**  
 그는 바울의 전도로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었다.  
**1:20 선비**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선생 혹은 서기관을 가리킨다.  
**1:20 변론가**  
 원래는 토론자를 가리키는데, 본

절에서는 궤변에 능한 고린도 철학자들을 가리킨다.  
**1:23 거리끼는 것** '뭇 함정, 올가미'란 뜻이나 여기서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유대인들의 기존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

**1:24 유대인**  
 최초로 사용된 성경 기록은 왕하 16:6이며, 포로시대와 그 이후에 흔히 사용되었다.  
**1:24 헬라인**  
 철학적 지혜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찾으며,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자들이다.